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사진=일상속의 예술전 광경

취임사

우리는 쉬지 않고 전진합니다



자연에는 후진이 없는 듯합니다. 하루하루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몸이 감관을 통해 느낍니다. 이제는 얇고 가벼운 옷마저도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절이 우리의 기력을 떨어뜨려도, 우리 동문들은 힘차게 창작에 몰두하고 계속 줄 믿습니다.

지난달 25일, 저는 서울대미대동창회 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동창회와 한 몸인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의 이사장에도 연임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신진대사를 통해 전진합니다. 새 사람이 들어와 새로운 기풍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을 텐데, 선배님들의 강권과 후배 동문들의 박수로 또다시 동창회 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향후로도 주어진 직분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미대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크

고 작은 전시를 On/Off Line으로 활발히 해왔고, 동문 작품도룩도 멋있게 출간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전시, 출판, 교육, 지원, 장학 사업에 더욱 충실을 기하는 한편, 서울대총동창회와 손잡고 우리 미대동문들과 미술 창작을 하는 여타 서울대 동문들과 상호작용하는, '숨은 예술가'전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동창회 후원회의 활성화, 장학기금 확충, 그리고 우리 동문들의 소장품전, 국내외 미술투어 등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대 동창회에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서울대미대동창회관'이 그것입니다. 시내 적절한 위치에 동문 여러분들의 전시가 열리고, 동문 간의 긴밀한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갖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이미 조성기금 적립이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조성과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자연이 그러하듯이 저희도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대 서울대미대동창회장
권영걸**

본회소식

일상속의 예술전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 69응미)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실에서 '2023 일상속의 예술 - Design & Craft'전을 오픈하였다. 이번 일상속의 예술전은 그래픽, 일러스트, 텍스타일 디자인 등의 평면 분야와 아트토이,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입체 분야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27일까지 열렸다.



원로세대부터 새로운 감각의 젊은 세대 작가들까지 세대를 넘나들며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본회 권영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본회에서 회화와 조각 등을 위한 전시를 주로 했고 공예 디자인 전시가 소외되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갤러리는 전문가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대중과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행사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전시를 계기로 대대적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전시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출품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모교 민복기(▼사진) 부학장은 축사를 통해 "공예·디자인전을 개최해서, 매우 기쁘고 이런 전시가 앞으로 더 크게 열리고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인경 중의학박사, 파워코리아 박정원 기자, 장지윤 작가, 국제티클럽 이흥주 원장, 한울회 이부연 회장, 춘천교대 이호욱 교수를 비롯하여 정옥란·김소선 고문 등 본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작가들은 자신의 소개와 작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소화행아트컬렉션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위치한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2023 소화행아트컬렉션'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함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 기회를 통해 회원들의 창작활동과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고 동문들에게 작품 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수익금은 총동창회 장학기금(미대 특장학생금) 및 미대동창회 창작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본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말 과제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해 온 이번 야식사업은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모교 재학생 후배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준비된 라면 230개가 빠르게 소진됐다. 이후 매회 100여 명의 재학생

모교지원

야식지원사업 성황리에 종료



들이 방문해 사업기간 중 총 1300여 개의 라면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작업하는 중에 생긴 이벤트를 무척 즐겁게 받아들이며 작업 중인 동기, 선배들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찾아와 바쁜 와중 잠시의 활력을 얻어갔다.

본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말 과제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해 온 이번 야식사업은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모교 재학생 후배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준비된 라면 230개가 빠르게 소진됐다. 이후 매회 100여 명의 재학생

회장동정

씨콘호치민2023 한국연사로 참석



본회 권영걸(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회장이 지난 6월 6일 코리아사이오 서밋(이마 KCS)이 호치민시 웨라톤사이공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도시문화융합콘퍼런스 씨콘 호찌민 2023(이하 씨콘 호치민)'에 한국 측 주요 연사로 참석하였다. 이번 씨콘 호치민에서 권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스마트시티로 가는 길 : 베트남의 활력과 산업'이라는 주제로 한국 측 기조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권회장은 베트남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빠른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했음을 주목하며, 지금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정책을 통해 앞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모교 학장과 서울대미술관 관장을 지낸 권회장은 국내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서울시에서 초대 디자인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2007년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부시장)을 맡았고, 저서로는 '신문명디자인',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공공디자인 행정론', '공간디자인의 언어' 등이 있다.

'국가상징공간프로젝트' 첫 방문지로 순천 찾아

권회장이 지난 6월 20일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위원회 민간위원 및 기획단 공무원 등과 함께 순천시를 찾았다. 권위원장은 지난 3월 제 7기 국건위를 출범하며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권위원장은 국토부와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정책 발굴 및 구체화를 위해 첫 번째 방문지로 순천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위원장 일행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노관규 시장으로부터 국제정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박람회장에서부터 순천만습지까지 3시간여 걸친 현장 관람을 진행했다. 권위원장은 칼럼을 통해 "도시 건축에서 미학적 수준과 생태적 관점을 도외시해 온 그동안의 반문명적 풍토를 반성하고 모든 국민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녹지환경에서 일하며 놀 수 있는 '새로운 국가상징 공간'을 정립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녹지 향유권'을 확대하고 전국 도시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며 "용산 개발이 그 첫 시험대"라고 말했다.

본회는 지난 6월 23일에 모교 운영위원회 집행부 가운데 개최한 '서울대미대 영상전'에 케이터링 협찬을 통해 후원했다. 케이터링은 마들렌, 에그타르트, 초코케이크, 병음료 등의 다과로 구성되었다. 이번 영상전은 74동 오디토리엄에서 세 타임에 걸쳐 진행되었다. 케이터링은 영상전을 방문한 관람객 인당 한 세트씩 선착순으로 제공되었다.

영상전 후원



본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말 과제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해 온 이번 야식사업은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모교 재학생 후배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준비된 라면 230개가 빠르게 소진됐다. 이후 매회 100여 명의 재학생

2022년도 사업내역

운영관리



▶관악대상 추천 및 수상

3월 28일 본회 추천으로 김인중 동문이 미대동문 최초로 관악대상 수상

▶정기감사 실시

2022년 6월 10일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2021년도 사업 및 회계내역 정기감사 실시. (감사 이종복, 김종선)

▶정기총회 개최

2022년 6월 14일 정기총회 개최(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개최)

- ① 2021년도 사업 및 회계 인준
- ② 2022년도 사업계획 인준
- ③ 회칙개정안 인준-모교 전현직 전임교원 특별회원 영입, 임원의 임기 3년으로 변경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후원

7월 22일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후원. 대상(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장상) 시상

▶캘린더작품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10일 2023년도서울대총동창회탁상용캘린더에 수록되는 작품 표지 포함 13점 선정. 소정의 이미지사용 저작권료 지급.
선정위원 : 김성희(서울대미대학장), 심상용(서울대미술관장),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서길현(미술평론가)

▶서울대오피스 재개소

모교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2020년 8월 13일 모교 50동 205호로 축소 이전했던 서울대오피스를 2022년 3월 8일 모교 50동 311호로 이전해 재개소 운영은 매주 화·목 오전10시 - 오후5시

▶후원회설립추진위원장 위촉

본회 발전을 위한 후원회 설립을 위해 2022년 12월 강인선(73회화) 동문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

회원관리 및 홍보



▶신입회원 기념품증정

본회 신입회원이 되는 2022년도 모교 졸업생(석박사포함) 들에게 입회 기념품(워시백) 증정

▶근조·축하기 제공

기존 근조기 외에 축하기를 제작해 결혼 등 회원 경사시 배송

▶E-NEWS 발간

본회 홍보 및 동문들과의 소통을 위해 연 12회 매월 말일 '서울미대동창회 E-NEWS' 발간, 현재 3천5백여명에 이르는 동문 및 관련인에게 발송

▶SNS 운영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만들어 동문들의 경조사 및 전시 등 근황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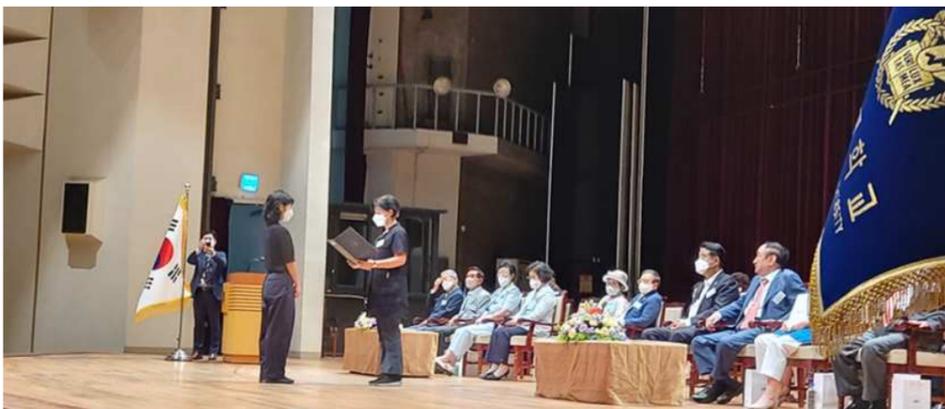
아카이빙사업



▶아카이브 구축 : 홈페이지에 동문 1000여명의 작품 및 경력 등 아카이브 운영, 지속적으로 자료 추가수록 및 수정작업

▶서울대미술인2023 발간 사업: 동문 7500여명의 경력과 실적물(작품·영화공연·저서·사업체 등)을 자료수집

모교지원



▶장학금 수여

매년 2회(2월 및 8월) 1, 2학기 과별 5명 선정, 각 100만원 지급
1학기 수혜자 : 김선형(디자인) 김충선(동양) 이은영(조소) 하수연(공예)
2학기 수혜자 : 김연주(서양화) 김유진(공예) 윤정의(조소) 이단비(동양) 이슬(디자인)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12월 15일 졸업전 우수작 8명에게 베리타스미술상(동창회장상) 시상.
수상자 : 김수연(도공) 손석민(시디) 이규림(산디) 이은호(동양) 이재석(조소) 이호경(영상) 장재경(서양) 전희영(금공)



▶학생회 지원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야식지원사업 실시, 졸업전과 과제전 준비로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야식지원. 서울대오피스에서 연500명에게 2000여개의 컵라면 제공

▶명절선물 증정

매년 설날과 추석에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 행정실 등 근무자분들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 전달

2022년도 사업내역

전시행사



▶SNU미술아카데미

서울대총동창회 공동주최, 에스아트플랫폼 주관으로 4월 20일부터 6월 15일 까지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 4번의 강좌를 각각 2회씩 서울대동문을 대상으로 강연진행. 모집인원 20명에 70명 신청수강 (강사 심상용 최혜원 손영옥 이연식)



▶SNU아트페어

서울대총동창회 공동주최, 에스아트플랫폼 주관으로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 수익금으로 서울대총동창회(관악회)에 미대특지장학금 2천만원 기부



▶베리타스미술상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 초대로 개최. 2021년도 모교 졸업전 동창회장상인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
 참여작가 : 김수연(도공) 손석민(시디) 이규림(산디) 이은호(동양) 이재석(조소) 이호경(영상) 장재경(서양) 전희영(금공)



▶THE NATURE

7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 초대로 개최. 자연을 주제로 52명의 동문 작품전으로 1부-자연을 그리다(7.12-8.5)와 2부-자연을 논하다(8.9-9.2)로 나누어 전시



▶세렌디피티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B에서 개최. 본회 추천으로 매년 1회 갤러리B에서 개최하기로 약정한 신진동문작가 초대전.
 참여작가 : 박수연 성하은 이현민 이혜리 장주연 채희원 홍해인



▶SNU장학기금마련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 수익금으로 서울대총동창회(관악회)에 미대특지장학금으로 1000만원 기부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운영

▶정기감사 실시 : 6월 10일 선릉오피스에서 21년도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감사 김소선)

▶이사회 개최 : 6월 22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총회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사회 개최. 21년도 사업회계 등 총회 부의사항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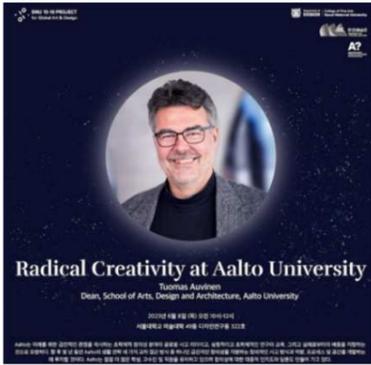
▶총회개최 : 7월 15일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에서 총회개최

▶임시총회개최 : 11월 8일 상록회관에서 개최. 임원개선 및 주소지이전. 임원개선 : 이사장 권영걸, 이사 강인선 김홍규 민수정 이민주 임영선 황현수, 감사 김소선 선임

▶서울대미대동창회 지원 : 미술교육사업 및 서울미술나눔-자선전시, 온라인동문전, 서울대미술인 발간, 아카이빙사업, E-NEWS 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지원

모교소식

알토대 Tuomas Auvinen 학장 초청강연



모교(학장 정의철)와 문화예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SNU 10-10 Project for Global Art & Design에서 지난 6월 8일 Aalto University의 Tuomas Auvinen 학장을 초청해 "Radical Creativity at Aalto University"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Aalto대학교는 미래를 위한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초학제적 창의성 분야의 글로벌 사고 리더로서, 실험적이고 초학제적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패로부터의 배움을 지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향후 몇 년 동안 Aalto University는 급진적인 창의성을 지원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역량, 프로세스 및 공간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의지를 보였다. Aalto는 또한 점점 더 많은 학생, 교수진 및 직원을 유치하고 있으며 창의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학교다.

아델라 김 초청강연 '제도비판 미술을 넘어서'



모교는 지난 6월 8일 저녁 아델라 김을 초청해 74동 오디토리엄에서 '제도비판 미술을 넘어서 : 안드레아 프레이저 작품에서 나타나는 "티어링 (Tearing)"' 'Beyond Institutional Critique: Tearing in the Work of Andrea Fraser'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강연은 제도비판 미술의 흐름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안드레아 프레이저의 작품과 그 방법론을 재조명하였다. 한편 연사 아델라 김은 현재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안드레아 프레이저의 제도비판 미술의 다양한 함의를 재고하고 새롭게 이론화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초청강연



모교 조형연구소(소장 정의철)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현대그룹과 함께 지난 6월 15일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를 초청해 강연 'Roots and Wings: 디자인 너머'를 개최하였다. 한편 연사인 독일 출신의 산업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아우디 디자인 총괄책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폭스바겐 디자인 총괄책임 맡았다. 이후 2006년에 기아자동차 최고 디자인 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2013년에는 기아자동차 최고 디자인 책임자이자 사장으로, 이후 현대자동차 디자인경영담당 사장을 거쳐 현재 현대자동차 디자인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진로특강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와 조형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특강 프로그램 제 4회차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부터 주제별 강사를 섭외하여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이인화 작가와 이주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사가 진행하였다. 이주연 학예사는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린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전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인화 작가는 김덕호 작가와 함께 양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소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색과 청색이라는 컬러 팔레트 속에서 다양한 도자제품을 제작해왔다. 현재는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 일상에서 사용하기 식기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 2학기부터 미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 시리즈를 진행해온 모교는 2023년에도 창작활동과 더불어 미술계 안팎에서 활약하는 1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예술과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생각들을 공유토록 하고 있다.



오뚜기 푸드트럭 이벤트

지난 5월 19일 51동 앞에서 '오뚜기'와 미술대학운영위원회 '가온'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오뚜기 푸드트럭이 모교 앞 아크로에 방문하여, 떡볶이, 피자, 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모교 구성원들에게 제공했다. 본 이벤트는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업 생활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뚜기와 모교가 협력한 행사였다. 학생들은 푸드트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즐기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과제전 및 졸업전 준비로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모교전시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학위 청구전

모교 2022학년도 후기 졸업전 및 석·박사학위 청구전이 지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간 74동 우석갤러리 및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후기 졸업전과 석·박사학위 청구전에는 서양화과, 동양화과, 디자인과 연합전공 영상매체예술, 조소·공예과가 순서대로 4일간의 전시를 열었다.



과제전 개최

모교는 2023학년도 과제전을 지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49-52동 실기실 및 공용공간에서 개최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학과와 과정은 서양화과, 동양화과, 디자인과, 조소과, 공예과 2-3학년과 1학년 전체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각 학과와 과정은 4일씩 돌아가는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였다.

서울대소식



난징대 총장 접견

지난 6월 2일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중국 난징대 탄쯔민(Tan Zhemin) 총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에서 두 총장은 10년 이상에 걸쳐 지속해 온 교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미래에도 상호 간 학생, 연구원, 교수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학술, 연구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현재 두 학교가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대학포럼 등의 대학 간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물동문추모비 및 현충원 참배



유홍림 총장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월 5일 서울대학교 내 문화관 대강당에서 전물동문추모비에 참배하고(◀사진), 서울대 보직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기획부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본부 보직교수, 학(원)장단 등이 참석하였으며, 조국을 수호하다 서거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헌화·분향했다.

함께살며 배우다, 거주형대학 LnL



서울대는 올해부터 거주형 대학(Resident College; 이하 RC) 시범사업인 'LnL'을 시작했다. LnL은 'Living and Learning'의 약자로, 생활과 교육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자 1,000여 명 중 추첨을 통해 뽑은 신입생 248명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 재학생과 대학원생 조교 39명 등 총

300여 명의 인원이 LnL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13개의 반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 RC는 여러 대학에서 도입한 방식이지만, 서울대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차별성을 뒀다. LnL에서 생활(living)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의 배움(learning)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학기에는 LnL 관악모듬강좌를, 그리고 2학기에는 LnL 학생 자유회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와 자율적인 탐구 방법을 배운다.

제도혁신위원회 출범

서울대가 대학 행정체제와 운영방식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제도혁신위원회를 총장 직속의 상설 특별위원회로 공식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의 현판 제막식과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행사는 지난 6월 1일 서울대학교 우정원에서 유홍림 총장, 윤영호 기획부총장, 정봉문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도혁신위원회는 문제 진단과 개선안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행정 인력을 참여시켜 혁신 로드맵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며 활동할 계획이다.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진행

지난 5월 26일 서울대본부와 총학생회가 2023학년도 1학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를 진행했다. 교개협은 서울대본부와 총학생회가 서울대의 교육 환경과 학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례협의체로, 올해는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총 2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실시한 교육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계획서 부실 업로드 문제 해결, 정규학기 개강 이전 수강신청 변경 기간 마련, 0학점 등록제 신설, 평가항목별 세부성적 공개, 계절학기 개강 이후 수강신청 변경 기간 마련, 필수교양과목 평가방식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을 본부와 논의했다.

가정의 달, 가족초청행사 개최



지난 5월 20일 서울대에서 가족초청행사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총학생회(총학)가 학생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기획한 행사로, 사전에 신청한 학부생과 그 가족 267명이 77개의 팀을 이뤄 참여했다. 행사는 학생처장 인사말,

음대 중창단 공연, 응원단 공연, 거점별 부스 체험, 중앙도서관 관정관 내부 투어, 저녁 만찬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체험 부스는 자하연, 인문사회계열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인문대 해방터, 자연대 대형강의동(28동) 부근에 설치됐다. 부스 체험 이후에는 희망 가족에 한해 식사 시간을 가졌고, 식사 시간 중에는 미리 접수 받은 학생들의 편지를 가족 앞에서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후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울대박물관 전시



왕도한성
몽촌토성 1983-2023
 ■기 획 : 서울대학교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주 최 : 서울대학교박물관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기간 : 2023. 5.23 - 8.31

서울대미술관 전시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 - 작가편
 ■기 획 : 서울대학교미술관
 ■주 최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 1-4
 ■전시기간 : 2023. 6.23 - 9.10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산하 관악언론인회(회장 박제균)는 지난 5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제2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양상훈(77산업공학) 조선일보 주필과 이강덕(82정치) 한미클럽 회장이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했다. 또 총회를 통해 박민(82정치)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제12대 관악언론인회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매년 1명에게 시상했으나 올해부터 2명으로 수상자를 늘렸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양상훈 동문은 1984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워싱턴지국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논설주간을 역임하고 현재 주필로 재직 중이다. 2003년부터 게재한 '양상훈 칼럼'은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 현상을 간결하고 명쾌한 논리로 파헤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치와 외교 뿐만 아니라 과학과 첨단산업 분야의 지식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 양동문은 "관악캠퍼스에 발을 디딘 지 46년 만에 동문 언론인들이 주는 상을 받게 돼 고맙고 감격스럽다"며 "내일 글 쓰는 일을 그만 두게 되더라도 오늘 쓰는 글은 사실을 찾고 할 말은 하는, 그런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강덕 동문은 1990년 KBS에 입사 후 정치부장, 해설위원, 워싱턴특파원, 디지털뉴스국장,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했다. 63대 관훈클럽 총무를 지냈고 전·현직 주미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 회장을 맡아 외교안보 전문지 '한미저널' 발간을 주도했다.

조찬포럼, 노동개혁 제시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6월 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을 주제로 노조와 회사,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로써 이뤄가는 노동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에 의해 법치의 기반이 약화되고 민주주의란 이름 아래 36년 동안 국가 권력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윤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수술의 칼을 빼 들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000명 이상 단위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수, 조합재정에 관한 서류, 노조 전임자의 수를 밝히게 돼 있으나 관행상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내 노동시장에도 희망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모델로 광주시와 현대차 등이 출자해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예로 들었다. 이날 포럼엔 조완규(52생물) 고문, 이희범(67전자공학) 명예회장, 김인규(69정치) 수석부회장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동문 전원에게 최인아(AFP3기) 제일기획 상임고문의 책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를 증정했다.

수요특강, 글로벌 시대 한국의 비전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SNU장학빌딩에서 열린 수요특강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이자, '글로벌 한국의 비전과 전략' 클러스터 장인 손인주(91동양사학)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초청해 수요특강을 개최했다. 손교수는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를 '강대국 사이에 낀 약



소국'으로 평가절하 하지만, 1인당 GDP, 군사력, 문화력 등 객관적인지표는 위상이 달라졌음을 가리킨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물질적인 국력(power)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정체성(identity)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손교수는 국가 정체성을 세울 때 세계주의를 기치로 개방적인 네트워크 국가를 국가 정체성으로 정립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쉽지 않은 국제공조의 실마리를 풀어갈 해법으로 '동심원적 다자주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외교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는 가지 않았던 불확실한 길을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국민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분열된 국론을 주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체성의 가장 지배적 담론은 '반(反)'이었으나 이제 '반'으로 시작하는 정체성이 가진 유용성은 많이 떨어졌기에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손동문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국가미래전략원보고서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인쇄본을 증정했다.

나눔골프대회 개최



서울대총동창회에서 지난 5월 22일 남서울CC에서 개최한 나눔골프대회에 동문 1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여성 동문 32명이 참가해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동문이 참가한 대회였으며, 이는 작년 대회 16명의 두 배다. 친선경기 남성 부문에서 이범준(78수의학)·정영래(AIP64기)·김세원(89전기공학) 동문으로 3명이 공동우승을 거둔 것도 동문 골프대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의대 A팀은 시상식 직후 100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1등 경품인 디지털 피아노에 당첨된 김정자(HPM 20기) 동문도 즉석에서 100만원 기부를 약속했고, 다음날 바로 실천했다. 남자 메달리스트는 73타를 친 김진희(86의학) 동문에게 돌아갔다. 시상에 앞서 김종섭 회장은 "서울 근교 명문 골프장에서 대회를 치르게 돼 기쁘다"면서 참가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대회인 만큼 나눔 문화 확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협찬 동문의 이름을 새긴 배너를 홀마다 1개씩 설치해 감사의 뜻을 표했고, 참가동문 전원에게 골프 모자와 티셔츠, 계란, 텀블러, 우산, 비타민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증정했다.

바둑대회

- 일 시 : 2023년 7월 2일(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 참가인원 : 약 200명 (동문, 재학생, 교직원)
- 참 가 비 : 2만원
- 진행방법
 - 가. 단체전 : 단과대학, 지부별 5명(후보 1명 추가 가능)
 - 나.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대국 방법은 변형스위스 리그로 진행
 - * 출전 동문수에 따라, 조 편성은 융통성 있게 적용
 - * 이벤트 형태로 올해는 장기대회를 실시할 예정

【협찬안내】

- * 협찬금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물품협찬은 담당자에게 연락

【문의】 총동창회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8 공지사항

회비납부 안내

본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동결해 왔던 회비를 부득이 다음과 같이 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총회의결에 따라 2023. 6. 1일부터 시행)

회비구분		조정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5월 회비납부내역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회비입금내역(5.1-6.26)-가나다순

회 장 회비	권영걸(69응미)
부회장 회비	김창수(82응미) 허 진(81회화) 황숙현(69응미)
이 사 회비	홍미엽(76회화)
일 반 회비	기은서(17동양) 김원세(58회화) 김효진(석7공예) 명소연(16디자인) 박미순(68응미) 박현숙(75회화) 박혜영(76응미) 배수연(17공예) 배창숙(74응미) 신희경(88산미) 안나영(16디자인) 옥유진(16공예) 이연미(석20공예) 이인승(12동양) 임현하(석21서양) 장성아(89서양) 정희균(85공예) 조소운(17공예) 황보영(15디자인) 황현숙(66응미)
평 생 회비	이민하(98동양) 임진욱(87산미) 조은령(87동양)
후 원 금	김소선(63조소) 53만원 이민주(76회화) 39만원
광고후원금	김소선(63조소) 20만원 선우향(91서양) 20만원 양승희(73회화) 20만원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가 <http://snuarta.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은숙(81회화) 부친상 2023년 6월 1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의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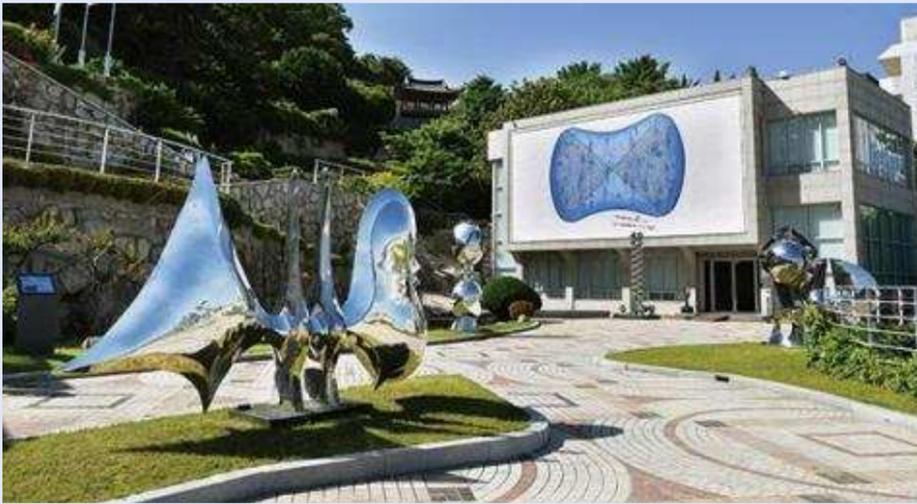
호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가로	세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100*80	6,6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100*130	8,8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50*125	13,2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150*190	16,500

동문미술관 탐방

문신미술관

최성숙(64회화)

본지는 지난 6월 8일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을 방문하여 최성숙 관장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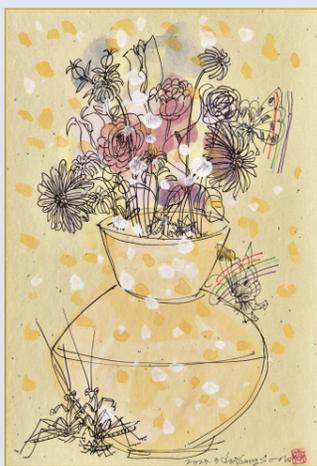
창원마산시립 문신미술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현재 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문신 작가의 작품을 보존하고 지키며 그의 예술세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과 작가로서 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 두 가지이다. 특히 문작가를 한국이 낳은 세계 3대 작가로 정립시키는 일이다. 문작가가 생전에 나에게 미술관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나는 그 뜻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박사학위를 댄다고 생각하면서 문작가

에 대하여 공부해 왔는데, 신기하게도 그에 관한 건 지금까지도 내 머리에 컴퓨터처럼 다 기억한다. 문작가를 우리나라와 창원시가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싶다. 다른 하나는 내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의 예술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달 부산 기장에서 개인전을 한다. 나는 늘 내 그림만 잘 그리면 모든 것이 좋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건강한 것에 늘 감사할 뿐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부산 기장에 연구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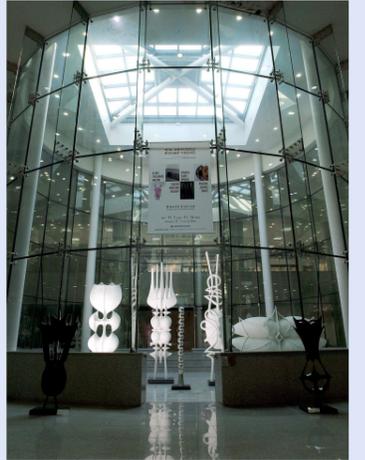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를 꼽는다면 1992년 프랑스 파리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문신, 헨리 무어, 알렉산더 칼더 세계 3대 거장 초대전이다. 이어 2005년 스페인 발렌시아비엔날레 '특별초대전'에 쿠사마 야오이, 문신, 소토 등과 함께한 전시와, 2006년 독일월드컵기념 바덴바덴 국제조각전에 피카소, 샤갈과 함께 20세기 거장전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신 작품을 초청해 개최한 '문신조각전'이다. 또한 2022-2023 대한민국 국립현대 미술관 문신탄생100주년 초대전이 있었는데 이런 전시들이 기억에 남는다.

문신미술관을 소개한다면?

문신미술관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문신원형미술관,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으로 총3군데에 있다. 파리에서 활동하던 문작가는 유년시절을 보낸 마산으로 귀국한 후 15년에 걸쳐서 직접 미술관을 건립하여 1994년 문신미술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미술관 개관 1년 후 타계하면서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문작가의 유언에 따라 2003년 문신미술관은 시에 기증되어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창원시에서는 문신원형미술관을 2010년 건립, 개관하여 116여 점의 석고원형작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또한 1999년 문신미술연구소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작품을 기증하여 2004년 숙명여자대학교의 르네상스플라자에 문작가의 작품과 자료 1800여 점을 소장한 문신미술관을 개관하였다.



최관장에게 문신이란?



문신은 예술의 경지가 매우 높아 따라가고 싶은 작가다. 내가 삼십 대에 독일 유학을 하던 중 그의 작업실에 가게 되었다. 문작가의 예술을 처음 보고 감동받아 문작가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문작가를 연구하며 프랑스의 평론가 등에게 부탁하면서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서울과 마산에 문신조각미술관과 원형미술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문신은 전통을 존중하며 기술적 세련미를 완성한 가운데 영감의 자유를 풍기는 작가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문신의 예술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의 예술적 경지에 따라가고 싶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후배와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사람에게 첫째는 건강인데 공부한 것은 나의 재산이 되고 결국 건강과도 직결된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큰일을 할 수 있다. 공부하면서 건강을 찾고, 음식은 소식하고, 입맛이 떨어지면 빨리 병원에 가라.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 문신미술관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47

전 화 : 055-225-7181

■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르네상스플라자 B2

전 화 : 02-2077-7052

‘한국문화의 자생성’ 특강 이종상(59회화)

이종상 동문이 지난 6월 24일 천안 중소기업커뮤니티센터 5층에서 ‘한국문화의 자생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 특강은 같은 건물 3층에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리는 ‘한국회화 거장전’에 더불어 열린 강의이다. 이동문은 이번 특강에서 한국 문화의 근원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통찰을 나눴다. 그는 고구려 벽화에서 ‘우리나라 미술과 문화, 의상 등 모든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고구려의 벽화는 때로는 중국의 벽화와도 전혀 다른 질료와 기법을 구사하며 발전했다. 습한 동굴에서 수천 년을 버티는 고구려벽화의 기법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자생문화라고 말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에 진학했으며 한국 자생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월전 장우성, 산정 서세옥, 남정 박노수, 청전 이상범, 이당 김은호 선생으로부터 동양화를 배웠다. 1977년에 율곡 이이 화폐 영정, 2009년에 신사임당 화폐 영정을 그렸으며 모교 동양화과 교수, 서울대박물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동문은 또한 서울대미술관 건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초대 서울대미술관 관장을 지내면서 기초를 다졌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네덜란드 도예, 디자인전 개최 이부연(71응미)

이부연 동문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시준비위원장으로 기획한 도예전시 ‘2023 Netherlands-Korea Invitational Ceramic Exhibition’과 디자인전 ‘2023 Netherlands-Korea Invitational Design Exhibition’이 개최되었다. 이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최,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가 한국의 도예와 디자인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나눔으로 우리의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최첨단 AI기술을 활용하여 한



국 현대도예와 디자인이 소개되었으며 온라인 미술전시와 미술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알리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전시회의 초대작가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유명 원로 중견작가 및 미래 주역으로 추천된 청년작가들로 구성되었다. 동문 중에는 서동희(66응미), 황현숙(66응미), 이경희(67조소), 허민자(63응미), 이부연(71응미), 장지원(72응미), 김유주(80응미), 정규리(90동양), 한영숙(92공예), 이혜미(08디자인) 동문이 참가하였다.

남원문화원 춘향영정 제작 김현철(79회화)

김현철 동문이 제작한 새로운 춘향영정이 지난 5월 25일 남원문화원 주최 봉안식을 가졌다. 김동문이 새로 그린 춘향영정은 판소리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와 경판본 ‘춘향전’의 첫대목에 등장하는 춘향의 모습이다. 김동문은 “새로 제작된 춘향영정은 진주에서 생산된 비단을 사용하고 물감은 자연에서 채취 생산된 염료와 함께 석채를 주 안료로 사용했다”며 “배채와 전체 과정의 전통 채색화법에 의거 영정을 제작 완성했다”고 전했다. 남원문화원에 따르면 춘향



영정의 옷차림 전반은 복식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그려졌고, 낭자머리는 이번 춘향영정을 통해 처음으로 재현됐다. 김동문은 또한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진경 아름다운 여백”을 주제로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간송미술관 연구위원,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최근 고산 혜원대선사, 공재 윤두서, 만해 한용운의 초상화를 그린 초상화분야 대가로 알려져 있다.

봄 국제학술대회 개최 오병근(82응미)

오병근 동문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자인학회가 지난 5월 20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한국디자인학회 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Design Transition: 새로운 시선’이었다. K-디자인 포럼을 통해 산업계, 교육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계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관해 고민을 나눴다. 오동문은 “AI와 같은 새롭고 변화무쌍한 기술은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



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이 같은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모두 173명이 논문을 발표했고 초대 전시회에는 10개국에서 125명의 작가가 디자인 작품을 전시했다. 1978년 설립된 한국디자인학회 누적 회원은 7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응용미술학사, 뉴욕대학교 대학원 석사, 모교 대학원 디자인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교수로 일하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의 시선’ 출간 이연식(90서양)

이연식 동문이 국내 작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세계를 조명하고 분석한 책 ‘에드워드 호퍼의 시선’이 지난 6월 13일 출판사 은행나무를 통해 출간되었다. 이번 저서는 호퍼의 작품을 15가지 주제로 나누어 바라보고, 그의 작품 세계에 숨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에드워드 호퍼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해 나가던 시기의 그림들부터 이번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서는 아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호퍼의 대표작들을 포함해 호퍼의 그림 55점을 수록, 분석하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현재는 미술사가로 예술에 대한 저술, 번역,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양미술사’, ‘죽음을 그리다’, ‘드가 일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낸 파리의 관찰자’, ‘이연식의 서양 미술사 산책’, ‘예술가의 나이 들에 대하여’, ‘불안의 미술관’, ‘뒷모습’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뱅크시, 벽 뒤의 남자’, ‘무서운 그림’ 시리즈, ‘모티브로 그림을 읽다’, ‘쉽게 읽는 서양미술사’, ‘레 미제라블 106장면’ 등이 있다.

도화원미술관 레지던스 선정 김호준(92서양)

김호준 동문이 전남 고흥 땅끝마을에 있는 도화원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에 선정되었다. 김동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작업 후 그 결과물을 8월 한 달간 전시할 예정이다. 김동문은 그동안 다양한 레지던스에 선정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흥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느낀 감흥을 작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김동문은 고흥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세루리안 블루 색상이 가미된 바탕에 인체가 결합된 새로운 구성의 작품을 제작 중이다. 레지던스를 제공하는 도화원미술관은 폐교를 이용한 미술관으로 이십



여 년간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작가를 선정하여 레지던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캔버스를 비롯한 화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난지창작스튜디오, 파주출판단지, 강원도 고성 피움미술관 레지던시작가로 입주한 바 있고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1 회원동정

도산150에 폭포의 벽 설치 홍성용(97동양)

홍성용 동문이 지난 6월 19일부터 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강남구에 조성한 도산150 사이버갤러리에 VR미디어아트 '폭포의 벽'을 설치했다. 홍동문은 최근 동양화에 기반을 둔 필획과 라이브 드로잉으로 흥과 리듬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신진 작가다. 이번 도산150 사이버갤러리는 마스턴투자운용이 공익적 목적으로 젊은작가들과 기업을 연결해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케이메세나네트워크와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폭포의 벽은 홍동문의 VR 미디어아트인 'Text Drawing Delight'



시리즈 4점이 전시된다. 손은신 사단법인 케이메세나 네트워크 이사장은 "사이버 갤러리는 건축물과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결합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며 "작가와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 공간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현대예술 장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 후 영국 Brighton University MA 과정과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쳤다. 홍동문은 서울대와 한양대에 강사로 출강하기도 하였다.

IF디자인어워드 본상수상 정연우(99디자인)

정연우 동문이 협업한 오토노머스아이투지의 무인배송 모빌리티 'ROBO A2Z'가 지난 5월 22일 'IF디자인어워드2023'에서 전문 콘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정동문은 'ROBO A2Z'(프로젝트명:SD)의 디자인 부문을 담당해왔다.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여, 정해진 구간에서 무인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특수목적 차량인 ROBOA2Z는 이미 지난 3월 미국 공공분야 최대의 컨설팅 펌인 가이드하우스로부터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순위"에서 세계 13위로 평가를 받아 혁신적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 받았지만 이번 IF 어워드 수상을 통해 정



동문이 담당한 디자인 혁신성도 세계적으로 입증 받은 것이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업디자인 석사, 영국 왕립 예술대학원 자동차디자인 전공 석사를 받았다. GM과 폭스바겐 그룹 벤츨리에서 외장디자이너로 재직하였고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 중대형승용차 외장디자인 그룹장을 맡으며 GM 쉐보레 크루즈, 현대 신형 제네시스 등을 디자인했다. 현재는 UNIST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거 르쿨트르와 협업 '오리진' 강이연(02서양)

강이연 동문이 예거 르쿨트르와 협업한 작품 '오리진'이 지난 5월 22일 공개되었다. 리치몬드그룹 소속의 스위스 명품시계 제조업체인 예거 르쿨트르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메이드 오브 메이커스' 프로젝트를 지난해 시작했다. 아시아 작가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동문은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설치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번 작품 오리진은 황금비율과 예거 르쿨트르의 대표 컬렉션 '리베르소'에서 영감을 받은 3D 영상 작품이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



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황금비율 아트 쇼'를 통해 특별 제작된 초대형 3D 스크린으로 전시되었다. 강동문은 "리베르소의 정교한 제작 과정을 보면서 리베르소가 황금비율을 따랐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예거 르쿨트르는 자연을 디지털 공간으로 끌어오고 싶었던 내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왕립예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객원교수를 거쳐 작년 12월부터 KAIST에서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커셔스 클레이와 협업 임성빈(08조소)

임성빈(활동명 빈지노) 동문이 미국 R&B싱어송라이터 커셔스 클레이와의 협업을 발표했다. 커셔스 클레이는 발매가 임박한 임동문의 정규 2집 '노비츠키'에 실리는 '트래블 어게인(Travel Again)'을 협업할 예정이다. 임동문은 최근 매거진 '러브 원트(LOVE WANT)' 최신호에서 클레이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클레이는 미국 재즈 명가 블루노트 레코즈에서 발표되는 자신의 새 앨범 '카르페(KARPEH)' 관련 깊은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빈지노로



활동중인 임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중퇴 후 힙합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 2008년 2인조 남성 힙합 듀오 재지팩트를 결성했으며 2010년 힙합 앨범 'Lifes Like'로 데뷔, 일리네어 레코즈와 계약을 맺었다. 2012년 첫 번째 EP '2 4 : 2 6'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으며, 싱글 'Dali, Van, Picasso', '11:11' 등을 성공리에 발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 중 한 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칸국제시리즈페스티벌 초청 현해리(08동양)

현해리 동문이 연출한 '계약직만 9번 한 여자'가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시리즈물을 소개·육성하는 제6회 칸국제시리즈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코리아 OTT 쇼케이스 부문에 참여했다. '계약직만 9번 한 여자'는 2023년 경제난으로 불어 닥친 해고난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작품이다. 한국 계약직의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 거듭되는 해고와 계약만료에도 곳곳하게 다시 취업에 도전하는 '회복 탄성력'이 강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총 9개의 직업에 대해 심도 깊은 고증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뉴욕국제독립영화제



(NYIFA), 로마아웃캐스트 독립영화어워즈, 터키 할리카르나수스필름페스티벌에서 베스트 필름부분을 수상, 토론토 국제여성필름페스티벌에서는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동문은 "사업 투자 없이, 청년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제작금으로 만든 귀한 작품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해외에 대한민국의 청년의 저력과 저 예산으로도 새로운 시도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증명해보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현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무암프로덕션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 출간' 김상규(10디자인)

김상규 동문의 저서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가 지난 5월 10일 스튜디오 무상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고려 불화를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김상규, 2023, 서울대학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장과 2장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옮겨와 새로 정리하였으며, 3장과 4장은 고려불화를 재해석하여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고려불화의 도상들을 분류하여 설명한다. 고려시대의 불교 회화, 즉 고려불화는 높은 예술성을 지닌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려 불화는 우리 곁을 떠나 오



랫동안 잊혀져 있었다.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에서는 고려불화의 조형적 특징과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자, 그 섬세한 형태와 선명한 색채를 현대적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표현한다. 총 47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수록되어, 그 안에 얹힌 역사, 예술, 조형, 종교, 철학에 대한 김동문의 디자이너적 시선을 보여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에서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재학 중이다. 저서로는 첫 번째 창작그림책 '달이의 영혼 구슬'이 있다.

성기점 기획초대전 성기점(58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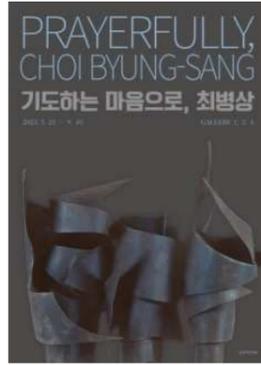


한국여류작가회 창립멤버이며 여성작가의 리더로서 한국미술계의 발전을 이끌어 온 성기점 동문의 대형 기획초대전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세종대학교내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학시절 인

물화를 비롯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작업해 온 풍경화 등을 시기별로 정리한 이번 전시에는 자연 계절 같은 단어에서 오는 시각적인 지각과 기억을 기하학적 요소가 가득한 추상적인 구조나 리듬으로 표현한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었다. 자연을 표현하면서도 푸른 계열의 서늘한 색채가 화면을 주도하는 것은 자연의 뼈대라 할만한 요소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성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회화과 졸업 후 2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한국예총 이사, 한국미협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MANIF서울국제아트페어 대상과 대한민국미술인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57조소)

최병상 동문의 전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이 5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한국 철조의 태동과 스틸아트의 시원에 대한 조명을 통해 그 예술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스틸아트뮤지움인 포항시립미술관이 기획한 스틸아트 작가 조망전이다. 최동문의 작업은 그가 용접 조각을 처음 접한 1958년부터 1960-1970년대 성장기, 1980년대 성숙기, 1990-2000년대 변환기의 세 시기로 나뉜다. 최동문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는



회고전 성격의 본 전시는 세 시기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아 최동문의 66년 조각 인생을 조명한다. 한편 최동문은 1961년에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1960년대에는 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했다. 제8회 국전(1959)에서 특선을 시작으로, 제2회 대한민국기독교 미술상(1996), 황조근정훈장(2002)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인전(1974, 1987, 2007)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백현옥展 백현옥(58조소)

백현옥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모란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아크릴 부조 작품들은 재료를 다루는 조형적 힘과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신적 힘이 융합한 결과에서 비롯되고 완성된 것들이다. 아크릴 작업은 일상과 자연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고, 그것이 조각에서 다양한 재현의 가능성으로 드러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에서는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되고,



예술 장르들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며 오직 일상과 자연 그리고 공감과 관조의 정서가 하나의 조형의 빛 그 예술적 환영으로 현현한다. 한편 백동문은 60년이 넘는 조각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다양한 조형언어를 모색해왔고, 자연스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인하대 미술교육과 교수,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인천시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예해무변전 김소선(63조소)

김소선 동문의 개인전 '예해무변전(예술의 바다는 끝이 없다)'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갤러리소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이 갤러리소선을 오픈하면서 그동안 작업해온 자신의 작품을 정리해 보는 전시로 도자화전과 유화전이 두 개의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대표작인 호랑이 대작을 비롯해 토끼, 사슴, 거북이, 새 등의 동물들을 자신만의 해학적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들과 민화에 나오는 십장생도나 까치호랑이 등을 현대화한 작품, 산수화를 연상케하는 한국적인 유화들을 선보인다. 유화, 수채화,



도자화 등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김동문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 '벌서는 호랑이'처럼 민화, 전통화, 식물화, 동물화 등에 자신의 상상을 담은 작품세계를 표현해왔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 졸업후 가천대 사회교육원 위촉 교수를 지냈고 미국 일리노이대 등에서 특강을 했다. 또한 자카르타국립박물관, 에콰도르 키토국립박물관, 노르웨이 베르겐국립박물관 초대전 등 17회의 초대개인전과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출품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갤러리 소선
서울 중구 퇴계로44길19
문의 02) 2272 4072

김소선

개인전

예해무변전

: 예술의 바다는 끝이 없다

7.1-8.31

후원광고

제주포럼 특별전시회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의 특별전시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항공우주 박물관(JAM)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린다. 이 특별전시회는 본 전시기간 이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이번 특별전시 주제는 '자유 빛으로 스미고, 평화의 색으로 물들다'로, 김동문이 제주에 머물며 그린 16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은 여러 개가 하나로 연결돼 제주에서 영감을



을 얻었다는 김동문이 표현한 빛의 영롱한 흐름이 그대로 담겼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 파리 가톨릭대학에서 배움을 더했다. 파리에서 첫 개인전 이후 유럽 각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 200여차례가 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후 도미니크 수도회에 입회하여 사제의 길을 걸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에 전념, 세계적 거장인 '빛의 화가'로 자리잡았다.

'玄현에서 水墨수묵의 길을 찾다' 회고전 정치환(60회화)

정치환 동문의 회고전 '玄현에서 水墨수묵의 길을 찾다'가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대구 동구 정치환미술관에서 열린다. 정동문은 한국화단의 2세대 작가로서 한국화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화라는 과제를 집요하게 다뤘다. 정동문은 전통 필묵법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강하고 속도 빠른 단붓질이나 파필로 자연을 관조하는 작가 자신의 내밀한 정신세계를 표현한다. 정동문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도 이번 회고전과 더불어 6월 10일에 정치



환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오픈 학술 세미나에서 명지대 석좌교수 유흥준 미술평론가가 '묵법의 정통성과 현대성'에 대해 발제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2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한국미술협회 이사, 허백련미술상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침묵의 소리 김순기(66회화)

김순기 동문의 개인전 '침묵의 소리'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종로구 아라리오갤러리에서 열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6분 48초 분량의 멀티미디어 작품 '주석 정원-템플(Stock Garden Temple)'을 통해 자본주의적 가치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삶과 그 내면을 극대화했다. '바보 사진' 시리즈는 바늘구멍 카메라를 활용, 장시간 빛에 노출해 자연의 빛을 통과한 사물과 풍경을 90년대 아날로그 프린트에 인화한 사진작품들이다. 김동문은 1960년대 후



반부터 철학, 예술, 테크놀로지가 어우러지는 실험적 작업을 다양한 장르를 통해 선보여 왔다. 한국 현대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김동문은 모교 졸업후 니스국제예술교류센터 초청작가로 선발돼 프랑스로 건너가 액상프로방스대와 니스대에서 기호학과 미학을 수학했다. 니스대, 마르세유대, 디종대학 교수를 지내고 프랑스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그곳으로 양승희(73회화)

양승희 동문의 개인전 '그곳으로'가 사랑의교회 문화예술사역부 초대로 서초구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에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다. 양동문의 그림은 자유함이 있다. 혼자만의 자유가 아닌 보는 이도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함은 일필휘지로 풀어내는 호방(豪放)함과 최소한의 붓질에서 오는 편안한 해방감일 수 있다. 그 자유함 속에 절대자를 향한 진지함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그의 그림에는 여유로움이 있다. 팽팽한 긴장감 대신 맘이 편안해지고 몸도 느슨해지는 여유이다. 한편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동문의 인물 형상이 '컷아웃'이란 기법으로 새겨져 있어 날카로운 칼에 긁힌 듯한 흔적이 있다. 각각의 스크래치들이 인생의 상흔 같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응시하면



페인 자국들이 하나의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엮인 씨줄과 날줄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 즉, 구도자의 길을 가는 군상들을 세부가 아닌 덩어리감, 운동감과 함께, 깊고 진지한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백석대 기독교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사랑의교회 미술인선교회장, 크리스찬아트 피스트 운영위원, 사랑의교회 청년작가공모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워드차이나 '양승희 그림묵상'을 집필했으며 현재 사랑의교회 미술인선교회 명예회장, 한국기독교미술협, 한울회, 백석기독교미술협,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곳으로

6.10-7.2

화 수 AM10-PM5 토 AM 7-PM5
주말:AM9:20-PM5:00 (월,목,금 휴관)

후원광고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남측B5
서초역 3, 4번출구

그곳으로II-4 162×130.3cm, Acrylic on Canvas

양승희

초대 개인전

경계없는 올림-산에서 산으로 민정기(68회화)·신장식(78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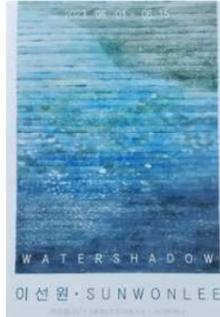
민정기·신장식 동문의 2인전 '경계없는 올림-산에서 산으로'가 지난 5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다다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한반도 평화의 기류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당시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과 로비에 신동문의 '금강산', 민동문의 '북한산'이 각각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는 '분단 현실의 국토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두 동문은 우리의 발로는 만날 수 없는 곳을 풍경화 작품 안에 담아 보인다. 신동문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쪽의



금강산으로부터 남으로 설악산을 거치는 백두대간의 자연주의적 실경에 작가의 감각적 형식을 더한 "북에서 남으로"와 같은 동선(動線)을 선보이고, 민동문은 서울 인왕산과 세검정 주변 삶의 풍경과 역사적 공간을 한 화면에서 기운(氣運)으로 병립한 산수를 공개한다. 한편 민동문과 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였다. 민동문은 제18회 이중섭 미술상(2006)을 수상하였고 신동문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미술총괄보 등을 역임하였다.

watershadow 이선원(75회화)

이선원 동문의 개인전 'watershadow'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백송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의 '물 그림자'는 물과 이동문의 기억이 만나 구성하는 풍경이다. 물은 바다, 강, 시내, 호수, 연못, 늪 등의 장소와 시간에 따라 무한한 색과 깊이와 형태를 담아낸다. 무심한 물 위에 기억을 띄우면 비로소 물과 작가의 구성된 인식이 일어난다. 이동문의 관심은 물이 정신성을 구현하듯이 '작품도 물질을 통해 작가의 영혼을 구현할 수 있는'가에 있



다. 이동문은 이번 작업 '물 그림자'에서 물의 자연스러운 번짐을 나타내기 위해, 장지를 선택하여 배채법으로 발색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PRATT INSTITUTE 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했다. 19회의 개인전과 100여회의 아트페어 및 기획전에 참가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호주국립미술관(캔베라), 서울 시립미술관(서울)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1988),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 우수상(1985)을 수상한 바 있다.

빛을 모으는 자들 이은경(77회화) 외 4인



이은경(77회화), 권용래(82회화), 권기동(83서양), 이창남(85서양), 김대용(87서양) 동문의 단체전 '빛을 모으는 자들'이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서울 신당동 페이토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다섯 동문이 빛을 관찰하고 창작에 활용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이들의 작품 21점을 통해 선보인다. 이은경 동문

의 자화상 'Grand Street Station 1210'은 충혈된 눈동자, 눈 밑 멍울 자국, 굳게 다문 입술로 현대인이 마주한 피상적 인간관계 속 피로감을 상기시킨다. 권용래 동문은 'Eternal Flame' 시리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에 빛을 더해 부조와 회화를 융합한 작업을 선보인다. 권기동 동문은 도시풍경을 격렬한 터치, 몽환적인 색채, 강렬한 빛으로 재구성해 마치 가공된 듯한 낮선 풍경을 보여준다. 이창남 동문은 작업실의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사물에 맺혀 만들어 내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화폭에 기록한다. 김대용 동문은 산에서 경험한 현상을 캔버스에 확장해 다채로운 형태와 색이 서로 섞이고 퍼지고 중첩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압축적으로 담아낸다. 한편 본 전시는 2021년 12월에 개관한 페이토갤러리에서 열리는 10번째 전시이다.

함미애초대전 함미애(81회화)

함미애 동문의 초대개인전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갤러리SOM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지난 4월 아트스페이스 쉼리아에서 미처 걸지 못했던 작품들과 그 이후의 최근작들을 선보인다. 함동문은 일본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 이후 외국으로 이주, 얼마간의 공백을 가지다가 최근 들어 그동안 발표하지 않고 있던 작품들과 신작을 섞어 설치 등의 실험적 표현으로 회화 내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적 영향력에 대한 전시를 펼쳐왔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오던 동양과 서양의 공통 미의식을 콜라주기법을 활용한 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회화적 언어로 치환해 디아스포라로서의 인간의 삶과 신에게로의 합일의지를 반추상으로 표현한다. 7일 오프닝에서는 작은 콘서트도 열렸다. 한편 함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경원대 섬유미술대학원에 진학하여 한지작가협회 및 분분합합전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다. 1996년 종로 갤러리에서 가진 첫 개인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올해의 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S-ARTMALL

에스아트몰은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갤러리입니다.

에스아트몰과 함께할 작가님들을 모십니다.
오리지널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의 작품들로 함께 에스아트몰을 키워나갈 작가님들을 기다립니다.

특별 할인 가격으로 작품들을 소장하세요.
서울대동문들과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들께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com

15 회원동정-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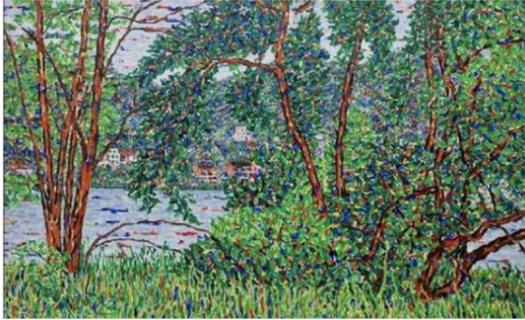
백묘 정용국(91동양)

정용국 동문과 故 원석연 작가의 2인전 '온전히 바라보다'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백묘(白描)의 향연인 두 작가의 흑백 회화 작업을 마주하며 흑과 백, 선과 면, 여백과 채움 그리고 사물과 풍경으로 시각 언어의 본질을 나타내는 화면을 통해 작가들이 추구한 세계관을 조명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2004년에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첫 개인전인 빈들에 서다(금호미술관)를 시작으로 이후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35회의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주요 전시로는 유목(상업화랑), 더쇼룸_Flow(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피막(상업화랑) 등이 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5회 송은미술대전 미술상을 수상했고, 제2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송은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미술관, 경북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눈 앞에 보이는 것 정일영(95서양)



정일영 동문의 개인전 '눈앞에 보이는 것'이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갤러리 내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정동문이 오랜 시간 자연으로 나가 그려온 풍경화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정동문은

매일 출근하듯 주변의 풍경 속으로 다가가 관찰하고 즐기며 작업에 몰입해 왔다.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자연을 해석해서 화면에 옮겼듯이 정동문도 본인이 해석한 자연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정동문은 자신만의 시각언어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의 형태를 거부하고, 풍경을 도구로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의식화된 이미지를 고집어 낸다. 풍경화 안에서 감상자는 작가의 깊은 성찰과 대상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치열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18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는 양평 서종면에서 작업하고 있다.

매일매일의 만화경 정혜정(95서양)

정혜정(필명 정직성) 동문의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페이지룸8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만화경'을 염두에 두고 새로 제작한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구성했다. 작가의 생활이 삶의 단상과 맞물려 구상 단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변주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 작업들은 최근에서야 '매일매일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매일매일의 만화경'이 되었다. 여태껏 추상회화를 추구해온 정동문의 이번 작품에는 동식물과 함께 바람, 비 등 공감각적 요소



들을 적극 활용한다. 물감이 흘러내리고 다시 칠해지며 그 사이의 형상들이 다양한 층위를 이룬다. 여기에 담긴 작가 개인의 복합적인 감정과 작업에 대한 고민이 캔버스 위 매일매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만화경이 된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2007년 서울문화재단 2007,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시각 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등에 선정되었다.

이름 없는 어떤 별 김우경(13조소)

김우경 동문과 김다빈 작가의 2인전 '이름 없는 어떤 별'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한갤러리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23 SHINHAN YOUNG ARTIST FESTA' 그룹 공모전의 선정작이다. 전시 제목 '이름 없는 어떤 별'은 두 작가가 흘러보내지 못하는 감각을 나누며 서로의 가슴속 남겨진 단어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는 종종 일상을 살아내며 형용할 수 없는 심정과 환영을 마주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형의 힘이 부여된 대상들을 뒤로하며 이름 없는 것들을 자유롭게 노래하고자 한다.



김동문은 '지금'을 살아가며 감각하는 삶의 단면을 물질의 형상에 덧입혀 스스로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오브제를 선택하고 변형하는 모든 과정에서 파생된 의미들이 오브제가 지닌 의미의 전부일 거라고 믿지만 전시 공간으로 나온 설치물은 또 다른 갈래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m, is, are 오다교(석17동양)

오다교 동문의 개인전 'am, is, are'이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파이프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오동문을 둘러싼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is'는 흔히 비정언적 존재의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계사로 작가는 이를 '나의 존재는 당신의 존재',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의 존재로 넓게 해석한다. 오동문의 작업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 즉 주요 재료인 흙의 성질이나 수분, 안료, 건조의 조건에 따라 재료가 변화할 가능성까지 작



업의 토대에 덩으로써 인간의 심상을 뛰어넘는 미감을 만들어낸다. 한편 오동문은 파리1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동양화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여름 빛' HPIX 도산, 'Waves of Love' Gallery DOS, 우석갤러리 서울 등이 있으며, '발견의 아름다움' 서울대학교미술관, '겨울 속 봄바람이 머무는 자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Église Protestante Un Cœur Pour Paris(Nesle Gallery 파리) 등에서 그룹전을 한 바 있다.

꾸밈없어 더 마땅한 : NATURE ITSELF 이정은(01서양)

이정은(활동명 이이정은) 동문과 유정현 작가, 노현우 작가의 3인 전 '꾸밈없어 더 마땅한 : NATURE ITSELF'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진선에서 열렸다. 이동문의 회화는 저마다 자유로이 살아있는 것들을 담아낸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봄에 피어 올라오는 아지랑이, 시원한 바람에 가지를 늘어트리며 바람에 몸을 맡긴 버드나무라던가 작가가 직접 보고 살갓으로 느낀 자연을 과감하고 시원한 붓 터치로 그려낸다. 이러한 작업은 버려진 폐광촌이 자연의 끈질긴 소생력으로 치유되는 것에 매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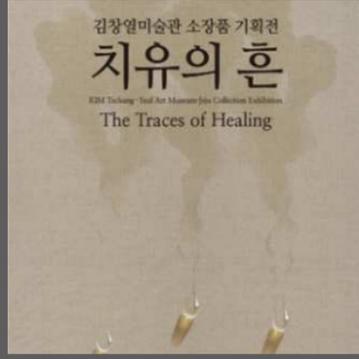
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전시작은 야생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쌓아올린 물감을 한 꺼풀 벗겨내는 새로운 방식이 더해졌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다수의 개인전을 열고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02년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6회 특선을 수상하고 2020 아트경기 2020작가, 2021년 2021 The shift 아티스트에 선정되었다. 현재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소리, 금양인터내셔널, 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7월의 전시



무위자연

이흥전(82회화)
1.1-12.31
카포레



치유의 흔

김창열(48회화,1929-2021)
3.7-7.9
김창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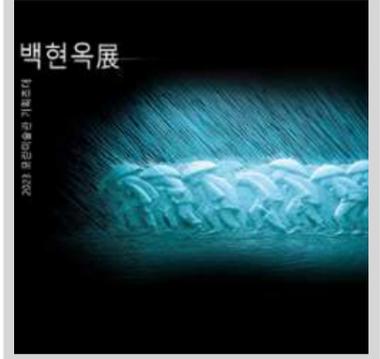
삶의 노래

서용선(75회화)
4.20-8.30
더갤러리138



소녀와 레후아

김상경(87서양)
5.1-7.31
호암교수회관



백현옥展

백현옥(58조소)
5.2-7.23
모란미술관



이름 없는 어떤 별

김우경(13조소)
5.23-7.5
신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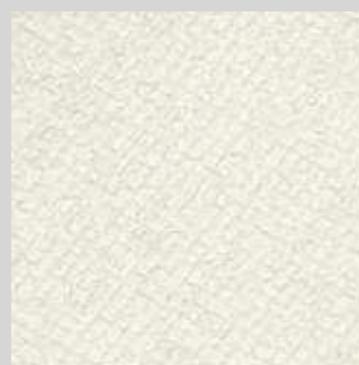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57조소)
5.23-9.10
포항시립미술관



화필인생

박노수(46회화,1927-2013)
5.26-24.3.31
박노수미술관



infinite breath

정상화(53회화)
6.1-7.16
갤러리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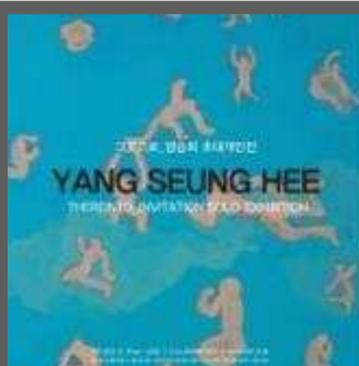
책, 꽃 그리고 물

안성민(90동양)
6.1-8.30
한국민화뮤지엄 갤러리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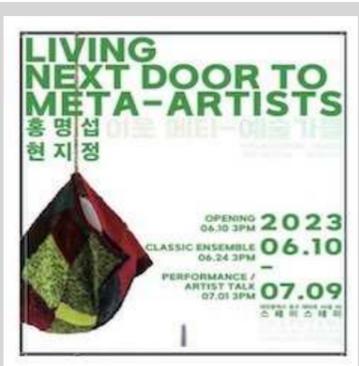
제주포럼 특별전시회

김인중(59회화)
6.7-8.31
제주항공우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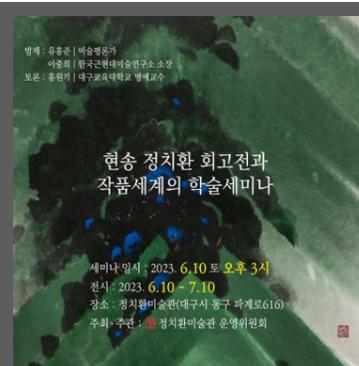
그곳으로

양승희(73회화)
6.10-7.2
사랑의교회 사랑아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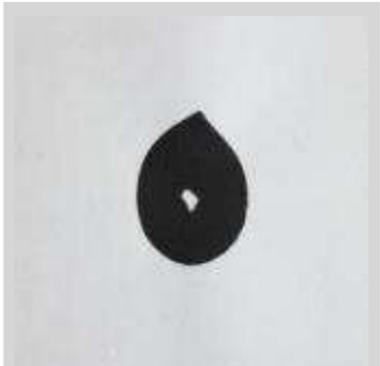
이웃 메타-예술가들

홍명섭(72조소) 외
6.10-7.9
스페이스 테미



玄현에서 水墨수묵의 길을 찾다

정치환(60회화)
6.10-7.10
정치환미술관



點·心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는가?

지원진(84동양)
6.15-7.5
아트레온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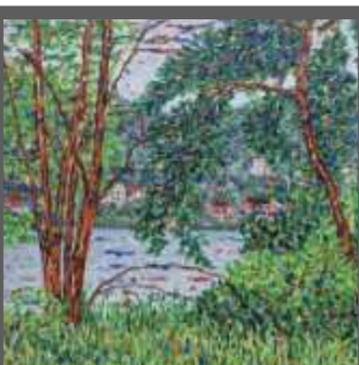
이발사 큐레이터

김은형(96동양)
6.15-7.15
OCI미술관



산, 속

이은경(02서양)
6.21-7.16
갤러리 밈



눈앞에 보이는 것

정일영(95서양)
6.30-7.12
갤러리내일



예해무변전

김소선(63조소)
7.1-8.31
갤러리소선



The Glory of God

변영혜(78회화)
7.5-7.31
동안교회 로댐갤러리